

북촌우물가

Andong Presbyterian Church News Letter

2006년 12월호

통권 제 166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동교회
ANDONG PRESBYTERIAN CHURCH

11월 교우소식

새 교우

- ♣ 권종옥씨(60년생), 종로구 삼청동 35-187 ☎ 725-2289, 010-9803-6655
구역 : 102구역(구역장-이생림집사)
인도자 : 박정희B 집사·박정희C 인도
- ♣ 김형택씨(62년생), 서연수씨(67년생),
종로구 계동 119-1 ☎ 010-4322-9903
구역 : 106구역(구역장-유현일집사)

사임

- ♣ 황금석 집사, 1989년 10월부터 17년 1개월간
관리집사 근무. 11월 19일 사임.

부임

- ♣ 이종훈 집사, 교회 관리집사로 19일(주일) 부임.
부인 최윤민 집사, 1남 지혜, 2남 지원.
- ♣ 한지윤 선생, 1부 오르가ニ스트로 25일(토) 부임.
성결대학교 교회음악과,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최고
연주자 과정 졸업,

결혼

- ♣ 이자영 군(이민호 교우·송혜자 집사 2남), 18일(토) 오후1시,
하림각 다이아몬드홀.
- ♣ 홍성창 군(홍영표 장로·김희수 권사 3남), 24일(금) 오후6시,
리베라호텔 본관 3층 베르사이유홀

감사

- ♣ 이주영 장로, 5일(주일) 칠순감사 점심식사 제공.

이사

- ♣ 추봉근·홍은애 집사, 경기도 양주시 삼송동 835 GS
자이A 608-1403호 ☎ 031-821-3938
- ♣ 황금석·석정녀 집사, 성북동 56-5 ☎ 743-2691
- ♣ 민남홍·이서희 교우, 용인시 신봉동 LG빌리지
503-1202호.
- ♣ 오도광 집사·이주영 장로, 가회동 36 우경산방 401호
☎ 766-1062

출국

- ♣ 이효종 장로·김희창 집사, 3일((금))~15일(수) 미국

성숙한 교회를 향한 컨퍼런스

‘성숙한 교회를 향한 컨퍼런스’가 11월 5일부터 1달동안 매주일 1시 30분에서 3시까지 진행되었다. 총 4회에 걸쳐 진행된 이 컨퍼런스에서는 박병우 담임목사가 의욕적으로 시작하게 될 안동교회 전 교우를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안내 겸 설명을 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우들의 진지한 열기도 뜨거워서 하루에 약 170여명이 참여할 정도로 열심을 보여주었다.

교회가 전통이나, 인물, 재정이나 프로그램, 행사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 즉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이끌어가는 성숙한 교회를 만들어가자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예배와 교육, 봉사, 선교, 교

제라고 하는 다섯 가지의 틀을 가지고 그 목적을 채워나가기 위해 교육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시된 커리큘럼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그 모든 계획에 대한 일종의 설명회이기도 하고, 교회의 목적을 하나 하나 점검하면서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공부하였다.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1. 성숙한 교회를 세우라.
2.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한 8가지 방법
3. 지역사회를 전도하라.
4. 군중들을 예배로 끌어들이라.
5. 등록교인들을 만들어가라.
6. 성숙한 교인을 키우라.
7. 핵심 멤버들에게 사역을 위임하라.
8. 진정한 지도력

교사대학

11월 12일 주일예배와 전교인 컨퍼런스 후에 바로 연이어서 3시 30분부터 5시까지 교사대학이 있었다.

교사대학은 우리교회의 각 교회학교 "교사들의 자질 향상 및 이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상·하반기에 각각 1회씩 실시하는데 이미 5년차에 이른다.

이날 특강은 장로회신학대학 영성학 교수인 유해룡목사가 "교사의 영성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였으며 각 교회학교 교사 40명과 교인 일부가 참석하였다. 이날 강사님은 최대한 수강생들과 가까이에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강단의 가장 낮은 곳에 자리를 잡으셨다.

교인으로의 첫 부르심인 "소명"과 이후에 일꾼으로 부르시는 두번째 부르심 "사명"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에 이어 "교회학교는 사명감없이 존재 불가능하다"는 설명과, "사명은 서로 충돌을 빚지도 않을뿐더러 성공과 실패로 구분되지도 않는다"는 말씀과 함께, 사명은 봉사가 아니며,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다.

교사의 사명감 확인 작업의 첫번째로 보람과 행복감, 두번째로 교사역할을 통한 자기발전, 세번째로 한계성과 극복, 네번째 결과(열매) 또는 그러한 흔적, 다섯번째로는 빛진자로서의 삶의 자세를 설명해 주었다.

특히 강의 과정에서 언급한 "네가 이 때를 위하여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사례를 통하여 "사명있는 사람은 결코 죽

지 않는다"는 교훈을 주었으며, "인생은 품앗이다. 자수성가란 말은 있을 수 없는 말이며, 우리는 모두가 빛진 자인데 그 값을 지불할 줄 모르는 값싼 교인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값진 교훈도 들었으며, "나에게 희망을 가졌던 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인데, 교사인 여러분들도 학생 각자 각자에게 희망을 품어야 한다"는 강사님의 간증을 통한 각오도 우리의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상기시켜 주셨다.

또한 "사명이 곧 능력이므로 교사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의 한계성은 능력의 문제가 아닌 사명의 문제"라는 말씀과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라면 이는 내 사명이 아니다"라는 판단기준도 제시해 주셨다.

강의 후 각 교회학교별로 모여서 각자의 교사로서의 사명감에 대한 약점과 이를 보완하는 방법 및 스스로의 평가를 그룹토의 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특강을 마쳤다.

안동의 밤

11월 11일 (토) 오후 5시 교회 본당에서는 중고등부 학생들 및 가족, 친구 약 2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우리는 하나되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안동의 밤이 열렸다.

안동의 밤은 중고등부 학생들의 찬양, 워십, 연극 등과 같은 문화 공연을 통해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고등부 자체 행사이다.

여는 예배에서는 안동의 밤 주제 성구였던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유금주 목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고 세워주는 관계, 공동체에 대하여 귀한 설교 말씀을 하였다.

1부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몸짓의 수화와 서동진 선생의 지휘로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한 아름다운 화음의 밤별 연주로 시작하였으며 멀리 철원에서 서울까지 찾아 온 신철원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의 찬양 찬조 출연으로 열기를 고조시켰다.

임성빈 선생의 지도로 준비한 워십율동은 적은 인원이었지만 열정적인 몸짓으로 보는 이들에게서 박수를 받았다.

2부 순서로 열린 뮤지컬 '가스펠'은 3개월여의 준비기간 동안 준비한 모든 것을 끼와 에너지로

모두 발산하며 노래와 춤, 연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회창 선생의 지도로 준비한 뮤지컬 “가스펠”은 신약성경의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비천한 할렘가에 버려진 사람들을 찾아온 스텝(예수님)의 이야기를 춤과 노래로 나타낸 뮤지컬이다.

학교 공부에, 학원시간에 쫓겨 준비할 시간이 제대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와 기도로 또 서로를 격려하며 준비하였던 모든 것들이 좋은 결실을 맺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준 뜻 깊은 시간이었다.

무엇보다도 이번 행사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중고등부들과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또한 오랜 시간 연습하며 더불어 기도로 준비한 중고등부 학생들 스스로에게도 훈련과 더불어 많은 성장이 있었음을 본다.

안동의 밤을 위하여 기도와 수고, 또 물질로 후원해주신 많은 성도들이 있었고, 매년 치러지는 이 행사가 분명한 목적가운데 세워져 나가길 희망해 본다.

선교회 총회

매년 11월 셋째주에는 각 선교회별로 총회를 갖는다. 이번 총회에서 새로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부회장	총무
한누리	조기현	오원표	오정섭
한 메	김동형	김윤성	신영식
한가람	이광태	이호창	
한빛	김희수	이주영	김정수
한샘	장문자	이순례	최명자
한길	최문수	유현일	오현숙
한사랑	강춘구	박병례	김미정
한마음	전혜란	서정은	조성아
청년부	김바울		김소연

새가족 성지 탐방

문화선교국에서는 그동안에 성황리에 성지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던 바 있어서 새가족을 위한 성지탐방을 기획하였다. 11월 11일 토요일, 마침 이날은 ‘놀토’라서 직장인과 학생들이 직장이나 학교를 가지 않는 날로 프로그램의 일정을 잡았다.. 작년과 올해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온 새가족들에게

교회생활에 조금이나마 친숙함을 제공하고, 신앙의 유적지를 찾아 도전을 받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전체 25명의 교우들이 함께 한 차를 타고 목적지인 제암리교회로 출발하였다.



차 안에서 서로 인사를 하고, 문화선교국 국장인 박정음 장로가 전날 가족들과 함께 정성껏 준비한 푸짐한 선물들을 나누고 빙고게임을 하면서 여행을 하였다. 또한 일제시대 독립운동 때문에 27명이 교회에 집합되어 학살된 장소인 제암리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설명하였다. 실제로 제암리교회에 도착하여서는 역사기념관에서 인솔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가 가진 신앙과 한국민족사에서 기독교인들의 민족의식과 신앙적 삶에 대하여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다.

노년부 경복궁 나들이

화창하고 따뜻한 좋은 날씨 11월 2일 노년부에서 경복궁 나들이를 떠났다. 경복궁은 위치상 우리교회와 가까이 있으면서도 자주 찾지 못한 곳이다. 이날 박병욱목사를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과 노년부 45명이 홍례문앞에 도착하였다. 풍성하고 넉넉한 계절에 고궁속에 와서 더 한층 아름답게 보이는 울긋불긋한 단풍아래 홍례문 앞에서 박병욱 목사의 기도를 마치고 근정전, 교태전, 경회루, 향원정 등을 가이드의 안내와 윤장섭집사의 자세한 보충 설명을 들으며 귀하고 웅장한 궁궐의 모습을 다시 한번 감탄하며 선조들의 지혜와 슬기를 느꼈다.

특히 이날 관람에서는 윤장섭집사의 특별한 배려로 11월에 일반인들에게는 개방하지 않는 경회루 내부를 관람하게 되어서 더욱 감사했다.

경회루 하층에 외주방형 내주원형으로 된 48개의 석주가 상층루 마루를 받치고 있으며 상층은 나무로 잘 다듬어져 있으며 연회장으로 되어 있고 사방을 시원하게 내려다 볼 수가 있었다. 거대하고 장중한 누각, 건축, 연지 모두 웅장하고 아름다웠다. 경복궁 궁궐은 의연하게 솟은 백악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광화문 장엄한 근정전 및 내전들이 자연의 풍자와 어우러져 장려한 외관을 형성한 조선왕조 말기에 건축된 한국 최대의 궁궐건축이다. 우리의 예정된 시간관계로 향원정과 민속박물관을 뒤로 한 채 송현클럽으로 점심식사를 위해 출발하였다.

노년부 나들이를 위해 박숙란장로가 30만원, 교육국장인 김용원장로가 10만원, 한누리선교회에서 10만원을 후원해 주었다. 또한 이순옥, 강재덕, 강정녀, 김민수집사 등 한사랑회원들의 정성어린 봉사로 더욱 즐거운 나들이가 될 수 있었다.

독거노인 김장 담그기

23일(목)에 사회봉사부에서는 독거노인을 위한 김장담그기를 하였다. 120포기의 배추로 김치를 맛있게 담그고, 돼지고기 약 500g씩과, 김, 무시루 떡을 배달하여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배달하여 드렸다. 우리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임종일교우가 고춧가루 2kg과 새우젓 1통(2kg), 까나리 액젓 1통(5kg)을 기증하여 주었다.



군부대 교회방문

4일 국내선교국에서는 미자립 오송제일교회를 방문하였다. 본교회에서 매월 25만원을 지원하는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 소재 상가빌딩 2층에서 평균 15명 성도가 주일예배를 보고 있는 형편

이었다. 담임목사는 30년 목회사역을 지속해 온 금년 62세의 채정렬 여목사님이시다. 지난 2월 골다

공증 악화로 척추수술을 받고 회복되었지만 아직 행동이 자유롭지 못한 편이다. 교회발전 전망은 상당히 밝은 편으로 교회 인근의 종교부지 330평(해당 지자체가 할당해 놓은 땅)을 불하매입하여 교회 건물을 짓고자 목표를 정하고 전교인이 기도 중이며 앞으로 훌륭한 목회자가 새로 부임하여 이 성업을 인계받아 교회 부흥이 일기를 또한 기도하고 있었다.

국내선교국에서는 김군중집사의 주도로 지난달 미자립 팔봉교회에 20만원 상당의 큰글 합본성경을 보내어 농촌지역의 어르신 성도들이 성경과 찬송가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으며 또한 자비로 교회 내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매트를 보내어 지난번 방문 때 들었던 미끄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특히 수년전 각 선교지회와 한가람 남선교회가 주축이 되어 종로구청과 협동으로 교회 인근 와룡공원에 잣나무 심기사업을 벌일 때도 묘목 구입 자금 등으로 개인 돈 300만원을 조용히 내놓은 선한 봉사는 지금껏 교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숨은 일화로 남아있다.

교회 김장

29-30일 양일간 친교봉사국에서는 교회 김장을 하였다. 배추 200포기와 깍두기를 정성껏 담았다. 친교봉사국 국원들을 포함한 교우들 약 20여명이 참여하였다. 특별히 이번 김장을 위해 봉사해주신 분들을 위해 많은 기증자들이 있었다. 계명의 권사는 예쁜 복주머니에 양말 1개씩을 넣어서 25명의 봉사자에게 수고를 위로하면서 기증하였고, 이정숙 장로는 시장주머니 30개를, 추혜숙교우는 굴,감,사과 등 과일을 푸짐하게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한빛여전도회에서는 찰시루떡 1말을, 김혜자권사는 초코렛을 준비하여 열심히 수고한 봉사자들이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다.

10월 담임목사 동정

1일 백병원 신우회 설교

6일-10일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총회·연합회·교계 소식

용서와 화해의 정신 실현

총회 특별사면위원회는 지난 14일 총회장실에서 제91회기 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직전총회장 안영로 목사를 선출하는 한편 특별사면에 대한 시행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1907년 평양 대각성운동 1백주년을 맞아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특별사면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총회 특별사면위원회는 지난 14일 총회장실에서 제91회기 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직전총회장 안영로 목사(광주 서남교회)를 선출하는 한편 특별사면에 대한 시행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별사면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현행 헌법을 잠재하고 사면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별을 추진할 것인지를 두고 열띤 토론을 펼친 뒤, 오는 12월 7일에 시행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면과 관련된 시행안을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 서기와 전문위원 4인(규칙부장 재판국장 헌법위원장 이성웅장로)에게 맡겨 연구 방향을 제안키로 했다.

이에 반해 총회 헌법에 해별과 관련된 권정 제88조와 90조 91조에 근거해 회개하고 해별을 구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위원회가 심사해서 각 치리회에 해별하도록 강력히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제91회 총회 결의 내용에 따르면, "1907년 대부흥운동 1백년을 맞아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책별 받은 자들 가운데 회개하고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제91회기에서 한시적으로 사면할 수 있도록 특별사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은 관계 법조항을 잠재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허락하며 위원회 구성은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만장일치로 기립해 결의하다"로 돼 있다.

개정사립학교법 '팽팽한 대결'

위헌 소지가 있는 개정사립학교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 4개월째를 맞아 본 교단 총회와 산하 대학 및 중고등학교들은 오히려 결연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순교를 각오하고 법률불복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총회와 산하 대학 및 중고등학교들은 최근 들어 이사 승인요청이 거부되는 위기 상황에서도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총회 산하 7개 직영신학대학교와 대학, 중고등학교들은 관계 당국으로부터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정관개정을 요구받고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총회 산하 학교들은 관계 당국으로부터 신임 이사 승인을 거부당해 학교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사립학교법 재개정이 반드시 이뤄질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본 교단 총회 산하 51개 중고등학교 교장들은 지난 7일 올림픽 파크텔에서 교장 협의회를 갖고 사립학교법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불복종운동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어 지난 8일에는 총회 임원과 교육자원부 및 신학교육부 관계자와 총회 산하 7개 직영신학대학교 이사장 및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사립학교법 대처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이사 승인을 허락하도록 보다 강력히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51개 중고등학교 교장들은 총회 사무총장과 교육자원부 총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신임이사 승인 요청이 거부돼 상당한 위기의

식을 갖고 있지만 일제시대 때, 폐교의 아픔을 겪은 역사를 감안해 끝까지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들은 또 기독교학교가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지역교회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어 열린 총회 산하 직영 신학대학교 이사장 및 총장들이 참석한 재정사립학교법 대처를 위한 대책회의에서도 총회 차원에서 비상대책기구를 마련하기로 하고 반려된 이사의 승인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총회 산하 직영신학대학교의 경우, 대구동 산성서학원이 요청한 임원취임승인신청이 교육자원부로부터 반려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년 5월까지는 12명 이사 가운데 9명의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로회부산신학원은 내년 1월 중으로 11명의 이사 임기가 만료됐고 장로회신학대학교도 현재 2명의 이사(감사) 신청이 반려된 상황이다. 또한 한일신학원은 이사장 취임 승인 요청이 반려됐으며 지난 10월로 4명의 이사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신대와 부산장신대 한일장신대 등 3개 신학대는 '준칙주의'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의 준칙을 1백% 지킨다는 조건으로 인가를 받은 상황이어서 현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이날 총회 개정사립학교법 대처를 위한 대책회의에서는 총회 차원에서 총회 임원과 법률고문 등으로 비상 대책기구를 만들어 총회 산하 신학대학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일을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총회는 대책기구로 하여금 신학대학들이 요청했다가 반려된 이사들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교육인적자원부를 방문하고 이사 승인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이미 신학대학의 경우, 정관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총회가 파송한 개방이사를 받고 있는 상황임을 알려주는 일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에이즈 문제, 한국교회의 또 다른 과제

"HIV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징벌이 아닙니다. 교회부터 이 편견을 깨뜨린다면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인



가를 탓하기 전에 힘들어 하는 지체를 위로 및 응호하고 국가에서는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1987년 수혈로 HIV에 감염된 이후 아프리카에서 에이즈 감염인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크리스토 그레일링 목사가 방한했다.

그는 지난 10일 월드비전 9층 예배실에서 '에이즈 문제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주제로 강연회를 열고 이같이 역설했다.

그레일링 목사는 "실제로 종교지도자들이 NGO나 지역사회 조직구성원들에 비해 HIV양성반응 환자에 대한 편견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에이즈 감염인이라는 낙인을 찍기 때문에 환자들이 지하로 숨어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구촌에서 현재까지 에이즈로 사망한 사람은 2천5백만 명 이상. 감염된 수치만도 4천여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중 여성감염자가 1천7백30만 명이고 대부분 아프리카에 거주한다는 아동감염자는 2백30만 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그레일링 목사는 "한국은 0.01%로 낮은 감염률을 보이기 때문에 에이즈에 대한 정보를 널리 전파해 효과적인 예방책을 마련하고 성경에 근거한 도덕적 가치관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육체적으로 힘이 약한 여성들이 'NO'라고 말할 수 있도록 성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과 성 문제를 원활히 토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부모의 모습이 역할모델이 될 수 있도록 생활 속부터 에이즈 감염 예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레일링 목사는 교회에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목회자들이 설교 중간에 에이즈 환자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는 것"이라며 "먼저 얼음을 녹이는 해빙기를 거친 뒤 실제적인 에이즈 교육을 통해 교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회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 HIV, 에이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도자를 파악할 것 △ 에이즈 문제에 대해 궁홀과 사랑의 언어로 말할 것 △ 감염인과 가족들이 교회를 찾았을

경우 그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등을 제시했다.

"처음에는 1~2 명의 비전으로 시작되겠지만 나중에는 확대되어 모두가 참여될 정도로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 에이즈 환자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고의 '얼짱'은 웃는 얼굴

김용태(성서요법전문가·전 동서대 교수)



요즘, 사회 각계, 에서 '얼짱'이란 말이 유행으로 번지고 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여대생의 과반수가 성형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그 중 70%가 또 다른 부위의 수술이나 동일 부위의 2차 수술을 하겠다고 했다.

성형중독자들은 일주일에 3시간 이상을 인터넷이나 성형정보지들을 서핑(surfing)한다. 또 이런 사람들 중에는 성형수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후속수술을 받기도 한다. 그러다가 부작용 때문에 '얼짱'은 커녕 '추짱'이 되어 자살하는 여대생도 있다. 심지어 성형수술 중에 사망하는 사람도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그렇다면 돈 들이지 않고 부작용도 없는 '얼짱'의 비밀은 없을까? 웃는 얼굴처럼 예쁜 얼굴은 없다. 아무리 예쁘고 멋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화가

난 모습처럼 보기 싫은 '얼짱'도 없다. 반면에 항상 웃음을 머금으면 '추짱'이라도 그렇게 예쁘고 멋있는 '얼짱'일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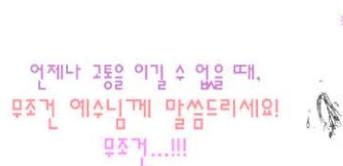
웃음건강을 40여년 간 연구해 온 윌리엄 프라이박사는 '한번 크게 웃으면 10분간 빠르게 걷는 것과 같고 윗몸일으키기를 25번하는 만큼 효과가 있다. 10초 동안 배꼽을 잡고 깔깔깔 웃으면 3분 동

안 힘차게 보트의 노를 젓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 논리에 의하면, 예 2분 웃으면 36분 동안 힘차게 보트의 노를 젓는 운동효과가 나타난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미국의 웃음치료권위자인 비크박사도 웃음은 '체내의 조깅 또는 내장마사지'라고 예찬한 바 있다. 세계적인 석학이자 영국의 철학자인 베트란트 러셀은 웃음은 만병통치약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웃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웃으면 면역체계를 약화시키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만병의 명약인 엔돌핀, 인터페론, 감마호르몬 등이 쏟아져 나온다. 물론 운동시에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지만 웃음운동은 2배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아무리 '얼짱'을 자랑하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대부분 '추짱'의 모습으로 변한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생활 속에 웃음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USA투데이'지의 보고에 따르면 어린이들은 하루 평균 400번, 들은 15번 정도 웃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들면 웃음도 감소하고 그에 비례하여 얼굴도 늙어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 '얼짱'을 원한다면 성형수술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확실한 효과가 있는 웃음운동을 하기 바란다. 아무리 웃을 일이 없어도 하루 2분만 투자하면 '얼짱'의 비밀을 체득하게 될 것이다.



주 안에서 '영·호남' 따로 없다

신학생들이 교단과 영·호남의 벽을 넘는 교류를 가져 신선한 화제가 되고 있다. 본 교단 호남신학대학교(총장:차종순) 재학생 30여 명은 실천처장 김진영 목사의 인솔로 지난 8일 예장고신 교단이 부산에서 운영하는 고신대학교(총장:김성수)를 찾아 연합예배를 가졌다. 종교개혁 4백89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신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기원했다는 데 주목을 끌었다.



호남신대 학생 30여 명과 고신대 학생 1천여 명은 예배를 함께 드리며 교단 분열의 아픔을 회개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사회에 가득 하기를 기도했다. 또 북한 핵문제 등 현 시국의 어려움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설교를 맡은 김진영 목사는 "이 땅에 사는 모든 크리스챤은 천국의 시민권자들로, 서로가 배풀고 도와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며 "서로가 사는 곳과 배우는 곳이 달라도 한국교회의 일치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호남신대와 고신대 교류가 이뤄진 계기는 작은 배려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6월 고신대가 국토대장정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호남신대로부터 숙소를 제공받으며 교류의 물꼬가 트여 이후 정기적 연합행사를 갖고 있다. 한편 고신대 재학생들의 호남신대 방문예배는 11월 23일 이뤄질 예정이다.

교회의 미래, 어린이 교육에 달렸죠

50여 년간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해 온 이석봉 장로 모두가 꺼리는 교회학교 교사를 지난 50여 년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헌신 봉사한 인물이 있다. 내년이면 70세 정년을 맞게 되는 이석봉장로(이리신광교회). 중간에 힘들다고 쉽게 교사 직분

을 내던지는 요즘, 그의 눈물 어린 봉사와 헌신은 그를 지켜보는 이들을 부끄럽게 한다.

장로가 되면 대부분 교회 봉사에서 손을 떼고 뒷 짐을 지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그는 지난 1982년 장로로 임직 받은 후에도 변함없이 교회학교를 지켜나가고 있다. 물론 처음에는 교사들이 이런 그의 모습을 쉽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의 열정에 감동을 받을 정도다.

현재 5학년 아동부 학감으로 10여 년째 봉사하고 있는 그가 오로지 어린이들을 위해 일평생 헌신하게 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그는 초등학교 1학년 때, 해방을 맞았고 6학년 때, 6.25 전쟁을 맞는 등 어린 시절,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어려운 가정 속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모태신앙에 3대째 신앙을 이어가는 집안이었지만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해 신앙을 지켜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도 그가 결길로 빠지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교사라는 직분 때문이었다.

나이 19세 때, 그는 처음으로 교회학교 교사직을 맡았다. 당시에는 아무 것도 몰라 다른 교사들이 하는 모습을 보며 따라 하기에 바빴다. 교육환경이 전혀 갖춰지지 않던 시절에 교육관도 없어 교회학교 어린이들은 유치부로부터 소년부에 이르기까지 오후 시간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린다.

어린이들을 가르칠 때, 그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다. 가르치는 어린이들이 가정에서 전도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어린이들의 모습을 통해 부모들이 변화를 받고 교회에 나오게 된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 그는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강조하고 가정에서의 바른 생활을 중요하게 가르친다. "문제는 그릇이 중요하다"고 말한 그는 "그릇이 깨끗해야 쓰임을 받는다"면서 잡자기 전에 그리고 공부하기 전에 꼭 성경을 읽을 것을 강조한다.

※[총회·연합회·교계 소식]은 한국기독공보 (<http://www.kidokongbo.com/>)를 참고하였습니다

북촌우물가

2006년 12월호 · 통권 제166호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안동교회

발행인 : 박 병 옥

편집인 : (교계소식) 구희숙

(교계소식) 안종혁

발행일 : 2006년 12월 3 일